

과학책 한권

朴益洙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지식과 사색과 생활과 감정들을 읽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는 일은 즐겁기도 하려니와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넓히고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누구나 많은 책을 읽기를 원하고 집에 좋은 서재를 갖춰 놓고 싶어한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개인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새로 짓는 집마다 으례 응접실을 만들고 응접실에는 대부분 서가를 꾸미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집을 문화적인 분위기로 가꾸려면 반드시 서가를 곁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일 게다.

그런데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금박자와 휘황한 대형전집물들이다. 세계대백과사전을 위시하여 세계문학전집, 위인전집, 세계사상전집, 그리고 인생, 건강, 성공, 요리 등에 관한 호화판 총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어 마치 집주인의 박식을 과시하는 듯하다. 그 책들이 한번씩이라도 읽혔다면 책 스스로의 그지없는 행복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그런 서가들의 아래단에 곁들여 자리잡은 단행본 책들을 볼 적이면 나는 으례 어떤 과학서적들이 있나 살피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하고 만다.

하기야 정치인들이 저마다 부국강병을 외치고 救貧정치를 굳게굳게 약속하면서도 그 어느 정당의 정강정책에도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치감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또, 경제를 논하고 철학을 역설하고 문학을 친양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 아닌가. 그러나, 과학기술적 지식이 없는 지성을 일러 과연 견전한 지성이 라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감각이 없는 정치가가 현대의 정치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끌 수 있겠는가.

현대를 과학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리하여 첨단과학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역사 창조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과학의 힘이 곧 국력이며, 외교의 힘, 국방의 힘, 경제의 힘이 되어가고 있다. 또 우주개발, 원자력, 전자기술, 컴퓨터, 오토메이션, 합성화학, 유전공학 등 다양한 첨단과학은 우리의 개인생활과 사회환경, 그리고 모든 국제관계에 걸접을 수 없이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과 사회와 국제관계의 장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학은 확실성의 한 담보가 된다. 자기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과학은 필수적이다. 첨단과학이 어렵고 취미가 없다고 해서 이를 경원하고 외면하면 현실에서 소외되고 뒤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공자의 이론바 '韋編三絕'의 독서태도를 가진다면 첨단과학도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 그래도 어렵다면, 장식장 같은 서재에나마 과학책 한권 정도는 간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현대의 지성인, 현대의 문화인, 현대의 정치인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89년 1월 20일 제34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표지인물 2 「제임스 조이스 전집」 完譯한 金鍾健 교수

출판화제 4 「學位論文 단행본」 늘고 있다

6 「음악학」 지평 넓히는 음악출판의 새 경향

교양논단 7 「예일학파의 맹장 폴 드 만의 독서이론」

서평 8 「李相禹 외 「북한 40년」」—崔文鉉

朴容相 「放送法制論」—崔昌燮

9 「로드릭 랑게 「춤의 본질」」—金泰源

백대웅 「인간과 음악」—權五聖

10 「金學主 「墨子」」—琴章泰

金永濟 「의학과 진화」—李炳勛

11 「李清俊 「아리아리강강」」—白承喆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洪廷善

얼굴 12 「全集 펴내는 전후문학의 대표작가 李浩哲씨」

13 「서울시문화상」 받은 高文社 白允基사장

좌담 14 「출판사-서점 공동체의식 높일 때」

— 김우래/박홍순/여병연/유학종/이호림/임건석/조기환

신간 다이제스트 18 「鶴은 왜 파도치는 바닷가에 그리나」

이색출판 19 「산에 들에 피어나는 한국의 꽃들」

에세이 20 「석류나무 가슴을 열 때는」—鄭椀永

기획취재 21 「고령층 대상의 도서개발 시급하다」

‘생활’과 맞서는 일본의 노인전문誌

19 「內實다지는 한국출판연구소」

저작구상 5 「韓國法思想史」—崔鍾庫

뉴스 29 「출협 정기총회 ‘회장단直選’ 정관개정안 다뤄」

지금 독서증 22 「양은식 외 「분단을 뛰어넘어」」—여성신문 발행인 李啓卿씨

이문재의 「내 젖은 구두 벗어…」—회사원 梁浩文씨

23 「바바라 런던 업턴의 「사진」—사진작가 이용주씨」

지금 제작증 23 「에세이 문고」 시리즈—世界社대표 최승호씨

컬러화보 24 「시인 具常씨의 書架」

베스트셀러 26 「法頂의 「무소유」·「서 있는 사람들」」—李清

詩集코너 28 「원재길 「지금 눈물을 물고 있는 자들」」—기형도

송재학 「얼음시집」—장정일

독자코너 29 「김상현/김원중」

세계의 출판 30 「2000년대는 공상과학소설의 시대·外」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창간호/자료집」

42 「理工도서」

43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데스크 칼럼 48 「裝幀 이미지의 迷宴」—李重漢

48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